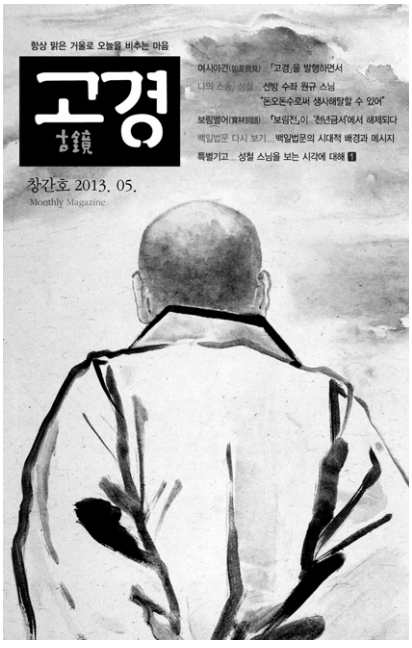


禪의 진수 전할 잡지 창간

해인사 백련암, 월간 <고경> 5월 창간... 선·명상 전문지



성철 스님 '선'의 진수 전달
순수 법보시로 독자들 찾아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전하는 선(禪) 전문 잡지가 창간된다.

해인사 백련암(감원 원택)은 5월부터 매월 잡지 <고경(古鏡)>을 발행한다. '4x6' 판형에 총 64p 분량으로 구성된 <고경>은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선(禪)과 명상전문 잡지를 표방하고 있다.

잡지명인 <고경> 역시 '본래 마음'을 뜻하는 말로 <선림고경총서> 중 <설봉록>에 나오는 용어를 성철 스님이 인용한 것이다.

명상 전문잡지인만큼 <고경>에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수록된다. 발행인 원택 스님은 '여시자전(如是我見)'을 통해 평생 시봉해온 성철 스님의 진면

목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일화들을 대중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유철주 기자는 '나의 스승, 성철'에서 제자들이 곁에서 모셨던 성철 스님 이야기와 받은 가르침 등을 가감 없이 전한다.

'제2의 법정'으로 평가받고 있는 원철 스님은 해능-마주 선사로 이어지는 조계종의 원류를 밝힌 최초의 전등록인 <보림전>의 안팎과 주변을 씨줄과 날줄로 엮으면서 동시에 오늘의 언어로 되살릴 계획이며, 서재영 박사는 한국불교 최고의 법문집으로 꼽히는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현대적 관점으로 재구성한다.

또 김재경 비움과소통 출판사 대표는 재가선(在家禪)의 대가들의 가르침을 통해 이 시대 재가자들의 수행 방향을 제시하며, 이인혜 자유기고가는 주인공의 삶을 살다간 선사(禪師)들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전해줄 예정이다.

<고경>은 향후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 선과 명상 문화의 흐름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발행인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의 핵심 가르침인 선(禪)의 진수를 전달함과 동시에 현대의 다양한 명상 문화를 포괄하는 잡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진국에 있는 불자와 관심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택 스님은 또 "순수 법보시 잡지만큼 많은 정성과 후원을 보내주시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법보시는 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을 비롯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불자와 독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미술의 들린 용어 바로잡기 귀부(龜趺)→용부(龍趺)

거북등 모양에 용머리를 세운 까닭은?

거북의 입에는 보주 없다

귀부라는 것은 비석을 받치는 거북이란 뜻이다. 지난 회에서 용의 아들 아홉 가운데 첫 번째로 꼽은 비희(鳳凰)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했다. 세간에 도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 비(龜)는 '큰 거북'이고, 희(鳳)는 '힘쓰는 모양'이라는 뜻이니 '힘을 쓰는 큰 거북'이 된다.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좋아하고, 몸통과 등은 거북을 닮고, 머리는 용을 닮았으며 석비 아래에 둔다. 거북은 수명이 기나 영원과 길상(吉祥)을 상징한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귀부에 대한 지식 전부이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의미만 있을까.

모양은 거북을 닮았어도 실은 용이란 암시가 용구자설(龍九子說)에 담겨져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귀부라 부르고 얼굴을 귀두(龜頭)라 부르고 있으며 거북 등의 무늬를 귀갑문(龜甲文)이라 부르고 있으니 모두 틀린 용어들이다. 이제부터 용과 용부(龍趺)라고 불러야 하는지를 영기화생론(靈氣化生論)으로 풀어내려 한다.

호승지는 비석받침의 동물을 용의 아들로 보았지만 거북이라는 이름(鳳凰)을 붙였다. 그러나 거북의 형상이며 거북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귀부는 모두 비록 거북등처럼 보이는 것을 지고 있으나 얼굴은 용이다. 뿔이 있으며 수염이 길며, 무엇보다 입에서 영기문이 나오거나 보주를 물고 있는데 실은 입에서 무량한 보주가 나오는 광경을 상징한다. 거북이는 보주를 지닐 수 없다. 통일신라 890년 충북 월광사 원랑선사탑비(圓郎禪師塔碑)(그림①-1,2)나, 고려 946년 무위사 선각대사탑비(先覺大師塔碑)(그림②-1,2)나, 고려 1067년 법천사 지광국사(智光國師) 현묘탑비(그림③-1,2)의 얼굴을 보면 모두 용임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오자마자 왕이나 이에 버금가는 위대한 인물의 대좌로 용부를 삼았다. 그 첫 용부가 태종무열왕의 비석이며 그 이후 몇몇 왕의 용부가 남아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얼굴이 연꽃 보면 거북의 얼굴 같지만, 입에서 영기문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므로 용의 얼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곧 잊혀진 용의 얼굴로 변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왕이나 왕에 준하는 인물, 예컨대 김인문(태종무열왕의 동생)의 비석에는 용부가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원효보살로 일컫는 위대한 스님의 비석이 9세기에 세워지는데 그 때 비석을 용부에 세웠다.

왕이나 고승 비 받침에 사용

그러므로 용부를 받침으로 두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왕 및 왕족이나 고승들의 비석을 세울 때 용부가 갖추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위대한 인물에게만 갖추어지는 비석의 구성에 왜 용부가 등장하는가. 실제로 용의 등에 비석을 올려 세우려 하면, 용의 목이 길어서 세울 수 없다. 그래서 거북이의 등을 빌려와서 넓은 비석 받침을 마련하고 그 위에 안정감 있게 비석을 세운다. 그런데 등은 거북의 등 모양이 틀림없지만, 실은 육각수문(六角水文)으로 이루어져서 '물'을 상징하고 용의 본질이 '물'이므로 서로 상응하여 비석의 받침으로 삼아, 그 영화된 물에서 연꽃이 피어나고 그 연꽃모양 영기꽃에서 비석이 영기화생하는 광경을 나타내려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용-육각수문-(영기문이 있을 때와 없을 경우가 있다)-연꽃의 과정'을 거쳐 비석이 화생한다.

이 때 우리는 비석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비석이란 무덤에 묻힌 사람의 훌륭한 행적과 업적을 널리 기리기 위하여 돌에 그 내용을 정성껏 새겨서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석에는 위대한 인물의 행적이 아로 새겨져 있으므로 비석은 바로 위대한 인물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용부를 거쳐 위대한 행적이 화생하는 것이다. 즉 위대한 인간이 영기화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위대한 인간에게는 나라에서 비석을 세워준다. 그것은 서양에서 위대한 인간에게 동상을 세워주는 것과 같다. 귀부가 아니고 용부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강우왕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월광사 원랑선사탑비



그림①-1



그림①-2

무위사 선각대사탑비



그림②-1



그림②-2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



그림③-1



그림③-2

제 1회 통도사 사계 사진 공모전

접수 마감은 9월 5일

영축총림 통도사의 본사와 산태 암자의 사계절 풍광과 신생활동을 조화롭게 표현한 사진을 공모한다. 통도사가 '제 1회 양산 통도사 사계 전국 사진 공모전' 사진을 9월 5일까지 접수한다.

통도사 산태 암자의 사계절 풍광과 신생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진으로 참가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작품 규격은 11"×14"사이즈로 접수처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산지부에서 접수 받는다. 심사는 9월 7일 양산 통도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발표는 9월 9일이다. 시상일은



통도사 사진전 표지

10월 13일로 시상내역은 금상 1점(상금 300만원), 은상 2점(상금 각 100만원), 동상 3점(상금 각 20만원), 가작 5점(상금 각 10만원) 등이다. 접수처는 626-854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74-5 한국사진작가협회 양산지부 우편접수 받는다. (010)3562-8716 정혜숙 기자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부처님 오신날

전통 '조왕탱화'

옛말 그대로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그 "조왕탱화" 사업장의 조왕신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을 약속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가치가 더해가는 전통탱화입니다.

조왕탱화 상세안내

- 정의 : 부업의 신인 조왕신(부역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龜王壇)에 봉안된다.
- 유래 :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 명호 :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 구성 :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柴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 한국의 대표적인 조왕탱화 : 양산 통도사 비로암, 충남 계룡산 감사, 대구 팔공산 선봉사, 부산 삼광사, 경남 밀양 표충사
- 필수 :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龜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 내용 :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초안 (먹물 밑그림)



상호 (전통조왕상화)



문양 (고대문양)

- 기법 : (1) 출초 - (2) 배접 - (3) 아교포수 - (4) 도채 - (5) 바림 - (6) 문양 - (7) 금니 및 황선 꽃침 - (8) 금박붙이기 - (9) 상호 - (10) 틀 심기 - (11) 발미(전통기법 그대로!)
- 금어 : 원장 - 전국 공모전 불교미술분과 심사위원 화원 - 문화재 기술자, 기능자, 전수자
- 재료 : 천연연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규격 : 가로 61cm X 세로 91.5cm
- 문의전화 : ☎ 051)332-0045 / 010-9216-0988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